



윤동녕(서울장신대)

1. 서론

본 연구는 고대 근동의 문서들을 통해 종교적 지식의 유형을 발견하고 이들이 정책결정 과정이나 권력의 유지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분석한다. 종교적 지식은 왕이 획득한 권력을 합법화하는데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그가 권력을 유지하는 방편으로도 사용되었다. 따라서 빅데이터(big data)로서의 이들 문서들의 활용도를 살펴보고 권력의 형성과 유지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분석하고 고찰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목적이다.

최근 웹과 모바일 같은 디지털 통신의 확산으로 우리 주변에는 많은

정보와 데이터가 생산되는 빅데이터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¹⁾ 빅데이터 활용의 최종 목표는 ‘예측’이다.²⁾ 이러한 예측은 어떤 데이터를 쓰는지, 또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분석해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면 경쟁력의 우위를 점할 수 있다. 그런데 빅데이터의 본연의 기능인 ‘예측’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 활용은 이보다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예측’은 산업사회나 정보사회의 산물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고대로부터 여러 가지 데이터가 미래를 예측하는데 사용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빅데이터와 예측의 관계를 알기 위해 고대 근동의 자료들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³⁾

주전 2000년경의 마리(Mari) 왕국의 기록 보관소에는 약 2만 여개의 토판이 발견되었으며, 주전 7세기의 신앗시리아(Neo-Assyria)의 아슈르바니팔의 도서관에는 약 2만 5천여 개의 토판이 발견된 바 있다.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A8015225).

- 1) 에레즈 에이든, 장 바티스트 미셸, 『빅데이터 인문학: 진격의 서막』 (김재중 역) (서울: 세계절, 2013), 20-21. 원제는 Erez Aiden and Jean-Baptiste Michel, *Uncharted: Big Data as a Lens on Human Culture* (New York: Riverhead Books, 2013).
- 2) 빅데이터의 예측능력과 활용영역에 대해서는 스티븐 베이커, 『빅데이터로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 (이차희 옮김) (서울: 세종서적, 2014)을 참조하라. 원제는 Stephen Baker, *The Numerati* (New York: Mariner Books, 2008).
- 3) 프랑크 하르트만은 오늘의 세계를 “매개된 세계”라고 규정한 바 있다. 쌍방간의 소통은 더 이상 면대면(face to face)이 아닌 인터넷과 같은 기계적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네트워크를 통해 쌍방간의 소통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간의 데이터도 순환되고 있다. 이 데이터는 그 규모(volume) 때문에 빅데이터(big data)로 불리고 있으며, 데이터의 빠른 순환 속도(velocity)와 다양성(variety)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데이터의 규모나 속도보다는 데이터의 정확성(veracity)의 측면을 더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많아서 중요해 보이더라도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을 수 있고 반대로 작고 사소한 데이터지만 가치 있는 정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일 못지않게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고대 근동의 점술 및 예언 문헌에 기록된 자료수집과정과 정책결정 과정은 오늘날의 빅데이터의 수집 및 분류 과정과 비교될 수 있다. 고대의 종교인들은 신과 공동체 사회를 연결하기 위해 신과 사회로부터 고용된 자료 여겨졌으며, 사회적 매체의 기능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왕은 이들을 통해 수집된 자료들을 취사선택하여 정책을 결정하는데 사용하였다. 프랑크 하르트만, 『미디어철학』 (이상연, 강응경 옮김) (서울: 북코리아, 2008), 32. 원제는 Frank Hartmann, *Medienphilosophie* (Stuttgart: UTB, 2000).

이들 토판에는 당시의 정치, 경제, 문화, 종교를 이해할 수 있는 수많은 기록들이 담겨져 있다. 특히 이들 가운데 구약성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종교 기록물들이 많이 발견되어 이들이 당시 권력자인 왕과 그의 정책 결정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러나 그동안 이 기록물들은 주로 종교적 제도와 내용을 파악하는 자료로만 사용되었다. 왜냐하면 이들은 구약성서의 종교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보충자료나 비교자료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대 근동, 특별히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종교 문서는 이미 당시에 도 종교 분야뿐 아니라 정치·경제의 정책을 결정하는 귀중한 자료로 사용되었다.⁴⁾

고대 근동에는 여러 가지 종교와 제의가 있었다. 이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독특한 기능을 하였다. 이들 종교와 제의가 올바르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전문지식이 필요했다. 이들 전문가는 다양한 명칭으로 불렸지만 사회학적 용어로 ‘전문 종교인’(religious specialist) 혹은 ‘종교 지식인’(religious intellectual)으로 규정할 수 있다.⁵⁾ 한편 전문지식은 통상적으로 ‘바루투’(barûtu)라고 불렸지만 사회학적 용어로 ‘종교적 지식’(religious knowledge)이라 부를 수 있다. 이 종교적 지

4)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종교적 자료는 오늘날의 빅데이터 못지않게 그 양이 방대하고 내용도 다양하다. 이들 자료들의 상당부분이 1960년대 프리차드(J. B. Prichard)가 편집한 「구약과 관련된 고대 근동의 문서들」(Ancient Near Eastern Texts Relating to the Old Testament)에 번역되어 있다. 이 책은 아주 중요한 자료이지만 번역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번역들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마리(Mari)문서의 경우 프랑스의 학자 장 마리 뒤랑(Jean Marie Durand)이 「마리 왕궁 문서」(Archives royales de Mari, 앞으로 ARM이라 약함)라는 시리즈로 32권을 편집해 출판하였으며, 지금도 계속해서 시리즈가 출판되고 있다. 한편 신앗시리아(Neo-Assyria) 문서의 경우 핀란드 학자 시모 파올라(Simo Parpola)가 「앗시리아 왕국 문서」(State Archive of Assyria, 앞으로 SAA이라 약함)라는 시리즈로 22권을 편집해 출판하였으며, 후속 시리즈도 출판중이다. 이들 문서에는 정치·경제 문서뿐 아니라 종교 문서도 다량 포함되어 있다. 특별히 종교 문서를 독립된 몇 권으로 출판하기도 하였지만, 당시 종교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어 다른 책들에서도 간헐적으로 종교적 자료들을 찾을 수 있다. 이들 자료들은 모두 왕궁의 문서보관소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당시 최고 권력자인 왕의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 문서들임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5) Victor W. Turner, "Religious Specialists," David L. Sills(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vol. 13; New York: Macmillan and The Free Press, 1972), 437-44.

식에는 오늘날에는 비과학적으로 여겨지는 간점(extispicy), 천문점(astrology), 주술(magic), 혹은 예언(prophecy) 및 신탁(oracle)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이들을 종교적 지식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들 자료가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관찰과 경험의 산물이고 이들로부터 오늘날의 과학과 수학과 같은 학문이 발전하였기 때문이다.⁶⁾

종교적 지식인들은 신의 뜻을 해석하기 위해 점술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왕이나 지도자들은 중요한 정책적 결정을 내릴 때 종교적 지식을 참조하였다. 때문에 이들 종교적 지식을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점술 자료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선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자료들을 분석하고,⁷⁾ 이를 통해 다양한 종교적 지식이 왕의 정책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구약 성경에 기술되어 있는 고대 이스라엘의 종교적 지식과 그 기능을 연구하고자 한다.

2. 빅데이터로서의 점술의 기능

고대 근동에서 왕은 한 나라의 중심이었다. 그래서 그의 운명은 곧바로 나라의 운명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때문에 모든 종교 활동의 중심에는 왕이 있었다.⁸⁾ 고도의 교육과 훈련을 받은 간 점술사(haruspex)나

6) 이미 주전 500년부터 천문점술(astrology)로부터 수학적 천문학(mathematical astronomy)과 별점(horoscopus)이 구분되어 각자의 분야에서 독립되어 발전했다. Francesca Rochberg, "The Cultural Locus of Astronomy in Late Babylonia," H. D. Galter(ed.), *Die Rolle der Astronomie in den Kulturen Mesopotamiens: Beiträge zum 3. Grazer Morgenländischen Symposium (23-27, September 1991)* (GMS 3; Graz: GrazKult, 1993), 35-43.

7) 본고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중 마리와 신앗시리아의 자료를 연구대상으로 한정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 지역의 자료들이 비교적 풍부하게 보존되어 있으며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있기 때문이다. 보다 광범위한 지역의 연구는 추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8) U. Koch-Westenholz, "Old Babylonian Extispicy Reports," C. Wunsch(ed.), *Mining the Archives: Festschrift for Christopher Walker on the Occasion of His 60th Birthday* (Dresden: ISLET, 2002), 131-145.

천문 점술사(astrologer)는 궁정이나 궁정 인근에 상주하면서 왕과 제국을 위해 신탁을 시행하였다. 이들은 왕과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정치 관료처럼 취급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왕의 고문(counselor)이 되어서 궁정의 결정과 정책을 위해 종교적 지식을 사용하였다.

1) 간 점술(Extispicy)

간 점술가들은 왕과 나라에 관련된 징조들(omens)을 분석하기 위하여 점(divination)을 쳐서 미래를 예측하였다. 간 점술사들은 아카드어로 바루(bārû)라고 불렸는데, “관찰자,” 혹은 “보는 자”라는 뜻이다.⁹⁾ 바루는 희생용 동물의 내장을 조사하는 방법(extispicy)과 동물의 간을 관찰하는 방법(hepatoscopy)을 사용하였는데, 주로 양의 간을 관찰하였다. 간점을 쳐서 얻은 결과는 신의 계시로 여겨졌기 때문에 소중한 자료로 간주되어 왕궁의 문서보관소에 보관되어 나중에 비슷한 상황이 전개될 때 참고용으로 사용되었다. 이들이 수집한 점술목록으로는 ‘숨마 알루’(šumma ālu)와 ‘숨마 이즈부’(šumma izbu)가 대표적이다.¹⁰⁾ 이들은 점을 치기 위해 관찰한 간의 모양과 이에 따른 징조를 “조건절”(protasis)과 “귀결절”(apodosis)로 표현하였다.¹¹⁾ 예를 들면 한 모음 집에는 “오른편 간엽이 정상이고(면) ... 적군이 왕의 손이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만일에 오른편 간엽이 왼편부터 위에까지 나와 있으면, 왕이 자기 소유가 아닌 어느 땅에 점령하게 될 것이다.”라는 신탁의 결과

9) A. Leo Oppenheim et al.(ed.), *The Assyrian Dictionary*(vol. 2; Chicago: The Oriental Institute, 1965), 121-24. (이하 CAD로 약함)

10) Simo Parpola, *Letters from Assyrian Scholars to the Kings Esarhaddon and Assurbanipal* (vol. 2; AOAT 5/2; Kevelaer: Butzon & Bercker, 1970-1983), 6-25.

11) Jussi Aro, “Remarks on the Practice of Extispicy in the Time of Esarhaddon and Assurbanipal,” *La divination en Mesopotamie ancienne et dans les regions voisines*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65), 109-110.

가 기록되었다.¹²⁾ 만일 왕이 징조를 물어 그 답을 얻고자 하면 점술가는 신탁을 통해 결과를 알려주고 왕은 자신의 정책을 결정하는 자료로 사용하였다.

마리와 신앗시리아의 왕궁 문서보관소에서 발견된 점술문헌에 따르면 점술의 주요 관심은 제국의 안정과 번영, 전쟁과 외교, 왕의 안전이었다. 마리의 점술가 아스쿠둠(Asqūdum)은 한 편지에서 “나는 이 달 말에 그와 함께 사가라툼으로 복귀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6개월 동안 사가라툼이 안전할지 점을 쳤는데, 그 결과는 긍정적이었습니다.”라는 보고를 하였다.¹³⁾ 다른 편지에서는 에립신(Erib-Sîn)이라는 점술가가 전쟁을 준비하는 짐리림(Zimri-Lim) 왕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나의 주의 군대는 무사할 것입니다. 히브르툼 달의 두 번째 날이 지나서 점을 쳤는데, 앞으로 한 달간 왕의 군대가 무사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고하였다.¹⁴⁾ 또 다른 편지에서는 이쉬아두(Ishi-Addu)라는 점술사가 전쟁의 승리를 예견하며, “나는 (왕께서) 삼 일 안에 도시를 점령할 수 있을는지 점을 쳤는데 결과가 좋습니다. … 점괘에 따르면 나의 주는 격렬한 전투를 벌인 후 점령할 것입니다.”라는 결과를 내놓았다.¹⁵⁾

마리왕국에서 점술은 종교적인 영역 뿐 아니라 정치, 외교, 군사적 영역에 큰 영향을 미치었다. 왕은 중요한 통치적 결정을 내리기 위해 점술의 도움을 받았다. 하지만 늘 왕이 의도한 대로 점괘가 나온 것은 아니다. 때로 왕의 의도와는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다. 반대의 결과가 나올 때는 결정을 내리는데 보다 신중하였다. 이러한 경우 왕은 해당

12) S. M. Maul, “Omina und Orakel, A Mesopotamien,” *RIA* 10: 69; E. M. Zuesse, “Divination,” *EncRel* 4: 375-382. 간의 오른쪽은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 신의 뜻으로, 왼쪽은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 적과 원수에 대한 징조로 이해되었다. 강승일,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의 점술』 (서울: CLC, 2015), 38-9.

13) ARM 26 88

14) ARM 26 96

15) ARM 26 117

문제에 대해 여러 번 점을 치도록 하였다. 보다 확실한 결과를 얻기 위해 반복해서 하는 점술을 확인점술(piqittum)이라고 한다. 이 확인점술은 부정적 점괘가 있을 때만 한 것이 아니다. 점괘가 긍정적이라 하더라도 보다 확실한 결과를 얻기 위해 시행하였다. ARM 26 100-bis에서 점술사 에립신은 왕에게 자신이 좋은 점괘를 얻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점괘가 확실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 확인점술을 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이전의 것과 같았다고 부언하였다.

한편, 신앗시리아의 점술문서는 “샤마쉬, 위대한 주시여, 내가 묻노니 ‘예’라는 답을 주소서.”라는 일정한 문구로 시작한다.¹⁶⁾ 이 문구 뒤에 해당 사건이 일어난 시간이나 기간이 진술된다. 점술의 결과는 ‘아주 긍정적’, ‘긍정적’, ‘부정적’, ‘아주 부정적’처럼 4가지로 표현되지만 크게 보면 긍정과 부정의 양자택일(binary) 답변으로 주어진 것을 알 수 있다.¹⁷⁾ 마리에서와 마찬가지로 신앗시리아의 점술사들은 주로 군사적이며 국가적인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다. 때문에 점술 자료들은 왕의 통치 자료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점술자료는 왕권의 합법성을 지지하는 중요자료였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지지를 얻으려면 긍정적인 점괘(annu kēnu)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신앗시리아의 간 점술사들은 다른 주술사들과 함께 궁중에서 팀을 이루어 왕에게 조언을 하던 궁중 학자들(ummānu)이었다.¹⁸⁾ 간 점술사 외에 천문점술사, 퇴마사, 주술사, 치유사 등도 같은 역할을 했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점술을 실시해 신의 뜻을 물어 왕이 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보조하였다.

점술사는 단순히 자신의 점괘만을 보고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점괘

16) Jussi Aro, “Remarks on the Practice of Extispicy in the Time of Esarhaddon and Assurbanipal,” *Recontre assyriologique internationale 14th(ed.), La divination en Mésopotamie ancienne et dans les régions voisines. 14^e Rencontre assyriologique internationale, Strasbourg, 2-6 juillet 1965* (CRRAI 14;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65), 109.

17) A. E. Glock, “Warfare in Mari and Early Israel” (Ph.D. diss. University of Michigan, 1968), 132, 137.

18) SAA 10 160

를 분석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 구체적인 조언을 작성하여 왕에게 보고 하였으며 왕이 정책 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때문에 점술사들은 왕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왕과 관련된 점술은 왕국의 정책이나 왕의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점술을 보고 하는데 있어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하여야 했다.¹⁹⁾

2) 천문점술(Astrology)

천문점술은 천체의 현상을 관찰하여 점괘를 얻는 기술로서 하늘의 현상을 이 땅에서 벌어질 사건을 예고하는 징조로 해석한다.²⁰⁾ 천문점술은 수메르 시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²¹⁾ 마리에는 증거가 많이 남아 있지 않다. 아스쿠둠이 야스마 아두(Yasmah-Addu) 왕에게 보낸 한 편지에서 월식(lunar eclipse)을 보고하며 징조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나의 주께 보고합니다. 당신의 종인 아스쿠둠이 보고합니다. 열네 번째 날에 월식이 발생했습니다. 월식은 불운의 징조입니다. 그래서 나의 주께서 안전하신지, 주께서 다스리는 땅이 평안할는지 점을 쳤습니다. 점괘는 좋게 나왔습니다. 나의 주께서는 지금 계신 곳에서 왕과 마리의 안정이 보장되는지 점을 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여 걱정하지 마소서! 이 보고에 대한 답장을 주셔서 나의 마음을 편케 하소서.²²⁾

19) ARM 26 1에는 점술가들이 지켜야 할 규정이 기록되어 있다. 그들은 왕에게 점술의 결과를 모두 보고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밀을 지켜야 할 것을 서약했다.

20) Francesca Rochberg-Halton, *Aspects of Babylonian Celestial Divination: The Lunar Eclipse Tablets of Enuma Anu Enlil* (AfO 22; Horn: Ferdinand Berger & Söhne, 1988), 8

21) O. R. Gurney, "The Babylonians and Hittites", M. Lowe and C. Blacker(ed.), *Divination and Oracles*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1981), 160.

22) ARM 26 81

이 편지에서 아스쿠둠은 월식의 징조가 불운하다고 생각해 간 점술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아마도 마리아에서는 천문점술의 결과를 간 점술을 통해 확인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마리아에서는 간 점술이 선호되었고, 천문점술은 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신앗시리아에서는 그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다.

신앗시리아 문서에 따르면 천문점술은 주로 ‘툽샤루 에누마 아누 엔릴’(tuṣṣarru Enūma Annu Enlil)이 담당하였다. 이 직책은 ‘에누마 아누 엔릴 서기관’²³⁾ 혹은 ‘천상의 징조 관찰 및 해석가,’²⁴⁾ ‘천상의 징조 전문가’²⁵⁾ 등으로 번역할 수 있다. 천문점술의 결과는 ‘에누마 아누 엔릴’이라는 모음집에 보관되어 있는데, 이 안에는 행성들의 이동과 변화 그리고 자연현상의 변화가 기록되어 있다.²⁶⁾ 하지만 이러한 기록은 단순히 자연의 변화만을 기록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 왕에게 닥칠지 모를 징조를 파악하여 미리 조치를 취하기도 하고, 왕의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는 적절한 시기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다.

간 점술사와 마찬가지로 천문점술사도 주로 왕과 왕국의 평안과 관련된 점술을 행하였다.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천문관찰 보고(報告)는 꺼려하였다. SAA 8 316에서 무나비투(Munnabitu)는 “나의 주, 왕께 제 입으로 직접 월식에 대해 말씀드리지 못하였습니다.”라고 하며 월식 현상을 제대로 보고하지 못한 것에 대해 왕에게 용서를 빌고 있다. 그는 그 대신에 월식 현상을 자세히 설명하고 이 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있다. SAA 10 56에서 발라시

23) Simo Parpola, “Mesopotamian Astrology and Astronomy as Domains of the Mesopotamian “Wisdom”, H. D. Galtner(ed.), *Die Rolle der Astronomie in den Kulturen Mesopotamiens: Beiträge zum 3. Grazer Morgenländischen Symposium (23.-27. September 1991)* (Graz: GrazKult, 1993), 49.

24) 윗글, 49.

25) Reiner, 윗글, 63.

26) Rochberg-Halton, 윗글, 8.

(Balasi)는 최근에 벌어진 지진에 대해 왕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권고한다. 그는 “(에아)신은 지진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것에서 빠져 나갈 방법도 만드셨습니다. … (에아)신은 왕께서 귀를 열고 듣기를 원합니다.”라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천문점술사는 천상의 징조만 관찰한 것이 아니라 지상의 이상 현상들도 관찰하였다. 다른 점술사들과 마찬가지로 천문점술사도 다양한 분야의 점술에 관련되어 있었지만, 천문점술이 주요 관심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예언(Prophecy)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간 점술이나 천문 점술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업 종교인들의 책임이었다. 이들은 점술 기법을 습득하기 위해 교육과 훈련을 받았으며, 점괘를 구하고 이를 해석하기 위해 전문 서적을 연구해야 했다. 하지만 예언자들은 전문 종교지식인들과 달리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았다. 대부분의 예언자들은 비전문가였으며 또 점술사들처럼 왕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위직의 인물들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이 선포한 예언은 소중한 종교적 지식으로 간주되었다.

예언은 보통 거리나 신전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선포되었는데 관리들이 이를 청취하여 왕에게 보고하였다. 물론 이들도 왕에게 직접 나아가 예언을 선포하고 싶었지만 전문적인 종교지식인들처럼 지위가 높지 않아 불가능하였다. 하지만 브레머(J. Bremmer)가 지적한대로 예언자들이 사회의 외곽에 위치했기 때문에 일상적인 사회관계에 매어 있던 직업 종교인들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었다.²⁷⁾ 고대 근동의 관리

27) Jan Bremmer, “Prophets, Seers, and Politics in Greece, Israel, and Early Modern Europe.” *Numen* 40 (1993), 164.

들이나 왕이 예언에 주목한 것도 이 때문이다. 예언은 점술처럼 사적인 장소에서 행해지지 않고 공공장소에서 선포되었으며, 예언의 주요 주제는 대개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항들이었다.

예언은 점술신탁처럼 그 결과를 왕과 신탁전문가만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다. 때문에 때로 관리들은 자신들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언을 선별적으로 수용하여 이를 왕에게 보고하였다(ARM 26 199). 관리들은 공공장소에서 선포된 예언을 글자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나름대로 해석해 전달했다.²⁸⁾ 이러한 관점에서 공공장소에서 선포된 예언은 여론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왕은 “예언에 함의되어 있는 강력한 사회적 압력”²⁹⁾을 느끼며 예언을 받아들여야 했다. 마리의 왕들은 공공장소에서 선포된 예언에 대해 강한 압박감을 느끼게 되었고 당면한 정치 사회적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야만 했다. 예를 들면, ARM 26 199은 에슈누나(Ešnunna)와 조약을 체결하려 하였지만 강한 저항에 직면한 짐리립 왕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는 결국 조약을 맺기는 했지만 이 과정에서 공공장소에서 선포된 예언들(ARM 26 197, 199)에 반영된 강한 반대여론을 극복해야만 했다.³⁰⁾

정치적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종교적 영역에서도 예언은 왕을 비판하는데 이용되었다. 특히 왕이 제사를 게을리 했거나 성전 봉사를 등한시 했을 경우, 예언자들을 통해 비판적 예언이 선포되었다(A. 1121+).

28) Martti Nissinen, *Prophets and Prophecy in the Ancient Near East. With contribution by C. L. Seow and Robert K. Ritner* (SBLWAW 12; Atlanta, G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3), 15.

29) William Moran, “New Evidence from Mari on the History of Prophecy,” *Biblica* 50 (1969), 21.

30) 에슈누나와의 조약 체결에 대한 논의는 Jack M. Sasson, “Water Beneath Straw: Adventures of a Prophetic Phrase in the Mari Archives,” Z. Zevit et al.(eds.), *Solving Riddles and Untying Knots: Biblical, Epigraphic, and Semitic Studies in Honor of Jonas C. Greenfield* (Winona Lake, Ind.: Eisenbrauns, 1995), 285-98을 참조하라.

마리의 관료인 키브리다간이나 사메타르는 예언자의 입을 빌려 왕의 불공정 정책이나 부정의(不正義) 혹은 종교적 위선 등을 간접적으로 비판하였다.

예언은 간접이나 천문 점술에 비해 신용도가 낮았다.³¹⁾ 왜냐하면 예언자는 특별한 훈련이나 교육을 받지 않았고, 예언은 계시의 정당성을 증명할 참고서적을 지니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예언을 통한 계시는 때로 왕에게 특별한 관심을 받았다. 예를 들면, 전문 신탁에 의해 왕의 권위나 정통성이 의심되었을 때 예언이 대한 신탁으로 취급되었다. 또한 관리들도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예언을 통해 들려진 신의 목소리를 빌리기도 하였다. 비록 그들이 예언을 취사선택하여 보고하였다 하더라도 왕은 여론의 반영으로 간주하여 함부로 무시할 수 없었다.

3. 고대 이스라엘의 종교적 지식

구약성경은 점술을 금지하고 있다(신 18:10-12). 하지만 구약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고대 이스라엘인들은 주변 세계로부터 영향 받아 여러 가지 점술도와 방법 사용하였다. 그러나 성경은 당시 사용되었던 점술의 유형이나 기법 혹은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다.³²⁾ 물론 그 자취들이 곳곳에서 발견되지만 구약성경은 이들이 당시

31) Herbert B. Huffmon, "Prophecy (ANE)", *ABD* 5, 477-82; Simon B. Parker, "Official Attitudes toward Prophecy at Mari and in Israel", *VT* 43 (1993), 50-68.

32) 고대 이스라엘의 점술과 주술에 대해서는 Frederick H. Cryer, *Divination in Ancient Israel and Its Near Eastern Environment: A Socio-Historical Investigation* (JSOT Sup 142; Sheffield: JSOT Press, 1994); Ann Jeffers, *Magic and Divination in Ancient Palesine and Syria* (Leiden: Brill, 1996); 배희숙, "고대이스라엘종교의 '주술' 유형과 그 기능-엘리아와 엘리사의 '기적사회'를 중심으로-", 「구약논단」 55(2015), 60-92; 강승일, "구약성서와 인류학-프레이저의 공감주술에서 더글라스의 거룩함의 개념까지", 「구약논단」 56(2015), 177-204.; 강승일, "고대 이스라엘의 신상과 신상의 입을 여는 의식", 「구약논단」 57(2015), 156-83을 참조하라.

권력과 정책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 않다.³³⁾ 또한 양적인 면에서도 구약의 자료는 고대메소포타미아의 자료에 비해 제한적이다. 하지만 구약에서 합법적인 계시의 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제사장 신탁과 예언의 자료는 비교적 많이 남아 있다.³⁴⁾ 그래서 이들 자료 중 몇 가지 사례를 선택해 제사장 신탁과 예언이 여론을 형성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을 살피고자 한다.

1) 제사장 신탁

제사장은 신탁의 도구인 ‘우림’과 ‘뚝뚝’을 사용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예’ 혹은 ‘아니오’라는 양자택일의 답변을 얻어냈다. 이처럼 제사장이 우림과 뚝뚝을 사용하여 얻는 양자택일의 신탁을 제사장 신탁(priestly divination)이라고 한다.³⁵⁾ 제사장 신탁이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구약에서 사용된 제사장 신탁의 문학적 양식은 공통점이 있다. 즉 내용상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질문과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고,³⁶⁾ 질문을 할 때는 히브리어 동사 ‘샤알’(šā'al)과 전치사 ‘브’(b^e)가 사용된다.

33) 민수기 22-24장에서는 예외적으로 발람이라는 점술사의 활동을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그는 선견자, 꿈 신탁가, 신탁 낭송자, 제사장, 주술사, 축귀사 등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 그가 받은 신탁은 이스라엘에게는 긍정적이나 그에게 신탁을 주문한 발람에게는 부정적이었다. 성경은 그의 신탁이 발람의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Walter C. Kaiser, Jr., "Balaam Son of Beor in Light of Deir 'Ala and Scripture: Saint or Soothsayer?", J. E. Coleson and V. H. Mathews(eds.), *'Go to the Land I Will Show You': Studies in Honor of Dwight W. Young* (Winona Lake, Ind.: Eisenbrauns, 1996), 101을 참조하라.

34) 사무엘상 28장 6절은 우림으로 대변되는 제사장 신탁과 선지자로 대변되는 예언 외에 꿈이라는 계시수단을 언급하고 있다. 꿈은 예언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신탁의 수단이기도 하다. 때문에 사무엘이 언급하고 있는 계시의 통로는 크게 제사장 신탁과 예언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35) Herbert B. Huffman, "Priestly Divination in Israel," Carol L. Meyers and M. O'Connor (eds.), *The Word of the Lord Shall Go Forth: Essays in Honor of David Freedman in Celebration of His Sixtieth Birthday* (Winona Lake, Ind.; Eisenbrauns, 1983), 354-59.

36) 박중수, 『이스라엘 종교와 제사장 신탁-제비뽑기의 신비』 (서울: 한들, 1997), 35.

사사기 1장 1-2절은 제사장 신탁을 통해서 어떻게 정책이 결정되는지 잘 보여 주고 있다.³⁷⁾ 여호수아 사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라고 질문하였으며, “유다가 올라갈지니라.”는 응답이 있었다.³⁸⁾ 본문은 여호수아 이후 누가 앞장 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할 지를 묻고 있다. 아마도 여호수아 사후 지도력의 상실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갈등과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체 혹은 대표자들이 모인 가운데 하나님께 신탁을 구하였고 유다 지파가 지명되었다.³⁹⁾ 본문은 이 신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려주지 않고 있다. 우림과 둠뎀과 같은 도구가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질문의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신탁이 대중에게 공개된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때문에 신탁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대중들은 이를 의심하거나 거부할 수 없었다. 신탁의 결과는 곧 하나님의 뜻이자 대중의 여론이 된 것이다.

사무엘상 10장 17-27에는 사울이 선출되는 과정이 그려지고 있다.⁴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라고 하는 공공장소에 모여 사무엘이 주도하는 신탁에 참여하게 된다. 이 신탁은 왕을 뽑기 위해 지파라는 큰 단위로부터 가족이라는 작은 단위로 내려가면서 한 사람을 선택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⁴¹⁾ 사울은 이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시행된 신탁에 의

37) 편집비평 학자들은 사사기 1:1-2에 후대의 편집 흔적이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본 논문은 편집학적 연구 방법보다는 종교사적 연구방법으로 본문을 분석하고자 한다. 린다스(B. Lindars)도 본문의 통일성을 강조하며 연대가 오래되었다고 주장한다. B. Lindars, *Judges 1-5: A New Translation and Commentary* (Edinburgh: T&T Clark, 1995), 4-5.

38) 본 논문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개역개정을 성경 번역문으로 사용한다.

39) 유다지파는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을 하기 위해 신탁을 구할 때도 선봉에 서라는 응답을 받는다(삿 20:18).

40) 어떤 학자들은 본문이 여러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한다(예를 들면 O. Eissfeldt, *Die Komposition der Samuelbücher* [Leipzig: J.C. Hinrichs, 1931], 7). 하지만 맥카터(P. K. McCarter)가 주장한 대로 사울과 관련한 전승자료의 고대성은 부인할 수 없다. P. Kyle McCarter, Jr., *1 Samuel: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B 8; New York: Doubleday, 1980), 195.

41) 박중수, *윗글*, 126.

해 선택된다. 때문에 이 신탁의 결과를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어떤 무리들은 신탁의 결정에 불복하고 불평하였다(삼상 10:27). 이처럼 공적인 신탁의 결정을 부정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뜻과 여론을 거부하는 적대행위였기에 대중의 분노를 샀다. 그래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백성들은 사울에게 이들 무리를 처형하라고 종용하였다(삼상 11:12-13). 이처럼 신탁의 결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범죄행위였기 때문에, 공적 신탁을 통해 왕으로 선택된 사울은 정통성을 얻게 된다.

한편, 사무엘상 14장 41절은 신탁을 통해서 권력자의 권력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⁴²⁾ 맛소라 텍스트를 대본으로 한 개역개정에는 신탁의 과정이 빠져있는데 칠십인역을 따른 새번역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다.

사울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었다. “오늘 저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니 웬일이십니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허물이 저에게나 저의 자식 요나단에게 있다면 우림이 나오게 하시고, 그 허물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있다면 뉘뉘이 나오게 하십시오.” 그러자 요나단과 사울이 걸리고, 백성들의 혐의는 벗겨졌다.

이 구절에서 사울은 음식을 먹지 말라는 금령을 어겨 생긴 소요의 원인을 찾기 위해 신탁을 주도한다. 아마도 사울은 그 원인이 백성에게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본인이 주도하든, 백성의 요구로 응하였든 신탁을 기꺼이 시행한다. 하지만 신탁의 결과, 원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있음이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요나단에게 책임을 물어 처형하려 했지만(삼상 14:39, 44) 백성들의 요구로 처형을 취소하였다.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사울은 임의의 인물을 소요의 원인으로 지목해

42) 본문에 나타난 사울전승의 고대성에 대해서는 McCarter, 윗글, 250-52를 참조하라.

희생양으로 삼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신탁의 절차는 사울로 하여금 독단적으로 범죄자를 지목하지 못하게 하고, 대신 대중 앞에서 공정하게 범죄자를 규명하도록 유도하고 있다.⁴³⁾

이처럼 제사장 신탁은 공동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신탁 이전에 있었을 갈등을 해소하고 신탁을 통해 공동체의 합의를 이끌어 내고 있다. 이를 통해 강력한 여론을 형성케 하여 권력자나 지도자가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처럼 제사장 신탁은 “어떤 결단에 이르게 하는 수단으로서 … 공공의 결정에 대한 합법성을 부여한다.”⁴⁴⁾ 이를 통해 공동체의 문제를 가장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공동체의 안정에 기여한다.

2) 예언

‘예’ 혹은 ‘아니오’와 같은 양자택일의 신탁 방식은 왕정 초기인 사울과 다윗 시대에 주로 사용되었는데, 다윗이 예루살렘에 정착한 이후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예루살렘 중심의 종교제도가 확립된 이후 제사장 신탁은 약화되고 그 자리를 예언이 차지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사장 아비아달 대신에 예언자 나단과 갓이 궁정의 중재자 역할을 하였다. 나단은 성전건축을 계획하던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는 예언을 전달한다. 그가 전한 예언(삼하 7:3-17)은 문학양식이나 내용면에서 신앗시리아의 제왕신탁(royal oracle)과 비슷하다.⁴⁵⁾ 제왕신탁은 왕의 안녕과 왕조의 지속을 약속하는데, 다윗의 집(삼하 7:12)에 대한 나단의 예언과 유사점이 있다. 제왕신탁과 마찬가지로 나단의 예

43) Huffmon, *윗글*, 355-359.

44) 박중수, *윗글*, 172.

45) 사무엘하 7장의 문학양식과 편집사에 대해서는 P. Kyle McCarter, *II Samuel: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B 9; New York: Doubleday, 1984), 209-31을 참조하라.

언은 다윗의 후손이 뒤를 이어 계속 왕위에 오른다는 왕조원리를 강조하여 다윗과 그의 후손들의 왕권을 확립하는 기능을 하였다.⁴⁶⁾

나단은 또한 사무엘하 12장에서 밋세바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를 심판하는 예언자로 등장한다.⁴⁷⁾ 나단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는 은혜를 회고케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은혜를 배반한 죄를 고발한다. 다윗의 범죄는 사형에 해당한다. 하지만 다윗이 죄를 고백할 때 나단은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함으로써(삼하 12:13), 왕권의 붕괴와 왕조의 단절의 위기에 빠진 다윗을 구원한다. 나단은 한편으로 다윗에게 심판예언을 선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그를 위기로부터 구원하는 비판적 지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예언자의 비판적 지지의 역할은 “다윗의 선견자”(삼하 24:11)된 것에도 발견된다. 그는 인구조사 때문에 위기에 빠진 다윗에게 세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케 한다(삼하 24:13-14). 갓은 또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고 이를 시행토록 하여 인구조사로 인해 발생한 재앙을 그치게 한다. 갓은 나단처럼 예언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왕권을 공고케 하는 역할을 한다.

예언은 제사장 신탁과 달리 하나님의 뜻을 묻는 질문의 과정이 없다. 왜냐하면 예언은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때로 신탁처럼 질문을 통해 예언을 얻는 경우도 있다. 강승일은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서 주어지는 예언을 “점술적 예언”이라고 주장하였다.⁴⁸⁾ 그는 예언자 아히야를 찾아와 아들의 병에 대해 물었던 여로보암

46) 나단의 예언에 나타난 제왕신탁 요소에 대해서는 Manfred Weippert, “Königsprophetie und Königsideologie in Juda: Zur ‘Nathansweissagung’ 2 Sa 7, 4-17”, T. Podella and P. Riede (eds.), *Spuren eines Weges: Freundesgabe für Bernd Janowski zum fünfzigsten Geburtstag am 30. April 1993* (Wissenschaftlich-Theologisches Seminar: Universität Heidelberg, 1993), 291-302를 참조하라.

47) 본문의 편집사에 대해서는 McCarter, 윗글, 304-9를 참조하라.

48) 강승일, 윗글, 218-20.

의 아내에게 주어진 예언(왕상 14장)과 병에서 회복될지 물어보는 왕에게 답변으로 주어진 예언들(왕하 1장; 왕하 8장)을 점술적 예언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강승일은 이러한 기사들은 왕의 권위보다는 예언자의 권위를 강조하기 위한 신명기 역사가의 의도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점술적 예언을 반드시 “신명기 역사가의 의도가 담긴 문학적 장치”로만 간주할 필요는 없다.⁴⁹⁾ 왜냐하면 이러한 유형의 예언은 이미 마리 문서에도 발견되기 때문이다.

ARM 26 216에 등장하는 나부(nabû) 예언자들은 “나의 주가 정결례를 치루고 성곽 밖에서 7일간 머무시면 안전하게 귀가하실 수 있을 것인가?”(10-13째줄)라는 질문을 받고 왕의 평안을 비는 예언을 하였다. 열왕기상 22장(참조: 대하 18장)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기록되어 있다. 22장 1절은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사백 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아합과 여호사밧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400명의 아합의 선지자에게 전쟁에서의 승리 여부를 묻고 긍정적인 답변을 듣는다. 이에 비해 미가야는 아합의 예언자들과는 달리 부정적인 예언을 한다.⁵⁰⁾ 두 왕은 다수의 의견을 따라 전쟁에 나갔으나 패전하였다. 열왕기상 22장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짓말 하는 영”이 두 왕을 속였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은 불가피함을 밝히고 있다.⁵¹⁾ 그러나 여호사밧이 사백 명의 예언에 만족하지 않고 추가적인 예언을 요구했고, 아합이 이 때문에 데려온 미가야의

49) 윗글, 220.

50) 열왕기상 22장에 나타난 예언자들의 대결에 대해서는 Simon J. DeVries, *Prophet against Prophet: The Role of the Micaiah Narrative (1 Kings 22) in the Development of Early Prophetic Tradition* (Grand Rapids, Mich.: Eerdmans, 1978)을 참조하라.

51) 캐롤(R. P. Carroll)에 따르면 두 왕이 전쟁에 나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이셨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속여 두 왕을 전쟁에 나가게 하여 패하도록 하였다. R. P. Carroll, *When Prophecy Failed: Cognitive Dissonance in the Prophetic Traditions of the Old Testament* (New York: The Seabury Press, 1979), 199.

예언의 독특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7-8절) 두 왕에게도 바른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⁵²⁾

구약성경은 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참조할 필요가 있음을 곳곳에서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라는 잠언 15장 22절은 한 의견에 만족하기 보다는 여러 의견을 참조하기를 권하고 있다 (참조: 잠 11:14; 24:6). 사무엘서와 열왕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왕들도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수의 대신들이나 신하의 의견을 경청 하곤 했다. 하지만 때로 바른 조언보다는 잘못된 조언을 따르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르호보함은 부친 솔로몬 왕을 섬겼던 노신들의 의견과 자신과 함께 성장한 젊은 세대의 서로 다른 의견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후자를 선택했다(왕상 12:6-14).⁵³⁾ 압살롬의 반역 이야기(삼하 15-18장)에서도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결정을 내리기 여러 의견을 청취하기를 원했다. 그들은 아히도벨과 후세의 책략을 비교한 후, 후세의 책략을 선택하였다(삼하 17:1-14). 하지만 잘못된 선택으로 결국 전쟁에서 패하였다.

예언의 선택도 마찬가지이다. 예레미야서는 당시 다양한 예언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⁵⁴⁾ 하나님을 포함한 대다수의 예언자들은 긍정적인 예언을 선포하였다(렘 27-28장). 예레미야를 포함한 소수의 예언자

52) 드브리스(S. DeVries)는 열왕기상 22장이 반 오므리 정서를 반영하는 A자료와 히스기야 시대의 상황을 반영하는 B자료가 합쳐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두 자료 모두 예언자 공동체에 의해 수집되고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시몬 J. 드 브리스, 『열왕기상』 (WBC 성경주석; 서울: 솔로몬, 2006), 552-62. 원제는 Simon J. DeVries, *1 Kings* (Word 12;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2003). 드브리스가 주장한대로 열왕기상 22장의 역사적 상황이 실제 상황과 다르다 하더라도 왕과 예언자, 예언자와 예언자 간의 관계,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와 결정이라는 요소들은 여전히 본문의 중요 주제이다.

53) 르호보암에게 주어진 제언과 조언들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M. Weinfeld, “The Counsel of the ‘Elders’ to Rehoboam and Its Implications”, *Maarav* 3 (1982), 27-53을 참조하라.

54) 예레미야서에 나타난 예언자들 간의 갈등에 대해서는 T. W. Overholt, *The Threat of Falsehood: A Study in the Theology of the Book of Jeremiah* (London: SCM, 1970); J. L. Crenshaw, *Prophetic Conflict: Its Effect upon Israelite Religion* (Berlin: Walterde Gruyter, 1971)을 참조하라.

들만이 부정적인 예언을 선포하였다. 당시 권력자들은 다수의 예언을 선택하였다. 오늘날의 빅데이터의 관점에서 보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의 선택은 실패로 끝났다. 이러한 실패는 선택에 있어 데이터의 양이 아닌 데이터의 질이 더 중요함을 보여 주고 있다. 설사 데이터의 질이 우수하더라도 선택과 결정은 왕과 같은 지도자의 책임이었고 바른 결정은 그들의 능력에 달려 있었다.

4. 결론

오늘날의 빅데이터 산업과 마찬가지로 고대 근동의 종교지식인들도 다양하고 방대한 자료를 빠른 속도로 유통시켰다. 이러한 정보들은 실시간으로 유통되어 정책에 반영되거나 컴퓨터의 저장장치처럼 왕궁의 기록 보관소에 보관되어 필요시 인용되었다. 때로 무가치하게 보이는 데이터는 왕에게 보고되기 전에 궁중의 내시나 고위 관료에 의해 검열되기도 하였는데, 이들의 검열 전횡을 견제하기 위해 종교지식인들은 왕에게 직접 보고하기도 하였다. 빅데이터로서의 종교적 지식은 이처럼 권력을 유지하거나 견제하는데 유용하였으며 권력자는 빅데이터를 사용하여 효율적으로 권력을 행사하였다.

권력자의 권력이 클수록, 그의 권력은 수하에 있는 자들의 조언과 협조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된다.⁵⁵⁾ 신앗시리아처럼 제국이 커지고 복잡해 질수록 권력자는 무엇을 명령해야 할지,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알려주는 조언자가 필요했다. 고대 근동의 종교인들은 자신들이 수집하고 분석한 종교적 지식을 왕에게 전달하여 정책을 구상하고 결정하도록 도왔다. 그러나 이들이 제공한 정보는 오늘날의 빅데이터처럼 너무나 방

55) 한병철, 『권력이란 무엇인가』 (김남시 옮김), (서울: 문학과지성사, 2011), 21. 원제는 Byung-Chul Han, *Was ist Macht* (Stuttgart: Philipp Reclam, 2005).

대하고 다양하였기 때문에 취사선택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권력자는 데이터의 왜곡을 줄이고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 가치 있고 유용한 데이터를 구분해 내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했다.

고대 근동에서와 마찬가지로 고대 이스라엘에도 점술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고대 근동과는 달리 고대 이스라엘에는 기계적이고 체계적인 점술체계가 없었다. 야훼 종교는 제사장 신탁과 예언만을 공식적인 계시의 통로로 인정하였다. 우림과 둠뭇 혹은 단순한 질문의 형태로 진행된 신탁을 통해 얻은 답변은 결정을 내리는 지침으로 사용되었다. 제사장 신탁은 공공장소에서 대중 앞에서 공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선택권이 있다 하더라도 신탁을 통해 얻은 결정을 수용하여야 했다. 예언도 왕이 정책적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었다. 나단과 갓은 다윗이 왕권을 강화하고 왕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언을 통해 격려하였다. 때로 예언은 왕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예언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비록 고대 이스라엘의 자료는 제한적이지만, 이들 자료들은 선택과 결정의 몫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마찬가지로 지도자에게 있었음을 알려준다.

5. 참고문헌

- 강승일,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의 점술』, (서울: CLC, 2015).
- 강승일, “구약성서와 인류학-플레이저의 공감주술에서 더글라스의 기록함의 개념까지”, 「구약논단」 56(2015), 177-204.
- 박종수, 『이스라엘 종교와 제사장 신탁-제비뽑기의 신비』, (서울: 한들, 1997).
- 배희숙, “고대이스라엘종교의 ‘주술’ 유형과 그 기능-엘리아와 엘리사의 ‘기적사화’를 중심으로-”, 「구약논단」 55(2015), 60-92.
- 스티븐 베이커, 『빅데이터로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 (이차희 옮김),

- (서울: 세종서적, 2014). 원제 Stephen Baker, *The Numerati* (New York: Mariner Books, 2008).
- 에레즈 에이든, 장 바티스트 미셸, 『빅데이터 인문학: 진격의 서막』, (김재중 옮김). (서울: 사계절, 2015). 원제 Aiden, Erez and Jean-Baptiste Michel, *Uncharted: Big Data As A Lens on Human Culture* (New York: Riverhead Books, 2013).
- 한병철, 『권력이란 무엇인가』, (김남시 옮김),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11). 원제 Byung-Chul Han, *Was ist Macht* (Stuttgart: Philipp Reclam, 2005).
- Aro, Jussi, “Remarks on the Practice of Extispicy in the Time of Esarhaddon and Assurbanipal”, *Recontre assyriologique internationale 14th*(Ed.), *La divination en Mésopotamie ancienne et dans les régions voisines. 14^e rencontre assyriologique internationale, Strasbourg, 2-6 juillet 1965* (Comptes rendues de la rencontre assyriologique internationale 14,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65), 109-17.
- Bremmer, Jan, “Prophets, Seers, and Politics in Greece, Israel, and Early Modern Europe,” *Numen* 40 (1993), 150-83.
- Cryer, F. H., *Divination in Ancient Israel and Its Near Eastern Environment: A Socio-Historical Investigation*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Supplement Series 142; Sheffield: JSOT, 1994).
- Durand, Jean Marie, *Archives épistolaires de Mari* (Archives Royales de Mari 26; Paris: Editions Recherche sur les Civilisations, 1988).
- Glassner, Jena-Jaques, “The Use of Knowledge in Ancient Mes-

- opotamia,” J. M. Sasson(Ed.), *Civilization of the Ancient Near East* (Vol. 3;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95), 1815-23.
- Glock, A. E., “Warfare in Mari and Early Israel,” (Ph.D. diss. University of Michigan, 1968).
- Gurney, O. R., “The Babylonians and Hittites,” M. Lowe and C. Blacker(Ed.), *Oracles and Divination*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1981), 142-73.
- Huffmon, Herbert B., “Priestly Divination in Israel,” Carol L. Meyers and M. O’Connor(Ed.), *The Word of the Lord Shall Go Forth: Essays in Honor of David Noel Freedman in Celebration of His Sixtieth Birthday* (Philadelphia, Pa.: American Schools of Oriental Research, 1983), 355-59.
- Kaiser, Jr. Walter C., “Balaam Son of Beor in Light of Deir ‘Ala and Scripture: Saint or Soothsayer?” J. E. Coleson and V. H. Mathews(Ed.), *Go to the Land I Will Show You’: Studies in Honor of Dwight W. Young* (Winona Lake, Ind.: Eisenbrauns, 1996), 95-106.
- Koch-Westenholz, Ulla, “Old Babylonian Extispicy Reports,” C. Wunsch(Ed.), *Mining the Archives: Festschrift for Christopher Walker on the Occasion of His 60th Birthday* (Babylonische Archive 1; Dresden: ISLET, 2002), 131-45.
- Maul, Stefan, “Omina und Orakel. A. Mesopotamien,” Erich Ebeling and Bruno Meissner(Ed.), *Reallexikon der Assyriologie* (Vol. 10; Berlin Leipzig: Walter de Gruyter, 1928-), 45-88.
- Moran, William, “New Evidence from Mari on the History of

Prophecy,” *Biblica, The Pontifical Biblical Institute’s Journal* 50 (1969), 15-56.

Morgan, Catherine, *Athletes and Oracles: The Transformation of Olympia and Delphi in the Eighth Century BC*.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Nissinen, Martti, *Prophets and Prophecy in the Ancient Near East*. With contribution by C. L. Seow and Robert K. Ritner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Writings from the Ancient World 12; Atlanta, G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3)

_____, “Das kritische Potential in der altorientalischen Prophetie,” M. Köckert and M. Nissinen(Ed.), *Propheten in Mari, Assyrien und Israel*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3), 1-32.

Oppenheim, A. Leo, Ed., *The Assyrian Dictionary*. 21 Vols. (Chicago: The Oriental Institute, 1964-).

Parpola, Simo, *Letters from Assyrian Scholars to the Kings Esarhaddon and Assurbanipal*, 2 Vols. (Alter Orient und Altes Testament 5/1-5/2; Kevelaer: Butzon & Bercker, 1970-1983).

_____, “Mesopotamian Astrology and Astronomy as Domains of the Mesopotamian ‘Wisdom’”, H. D. Galtner(Ed.), *Die Rolle der Astronomie in den Kulturen Mesopotamiens: Beiträge zum 3. Grazer Morgenländischen Symposium* (23.-27. September 1991) (Grazer Morgenländische Studien 3; Graz: rm-Druck- & Verlagsgesellschaft, 1993), 47-59.

_____, *Assyrian Prophecies. Illustrations edited by Julian Reade*

www.kci.go.kr

- and *Simo Parpola* (State Archives of Assyria 9; Helsinki: Helsinki University Press, 1997).
- Pongratz-Leisten, Beate, *Herrschaftswissen in Mesopotamien: Formen der Kommunikation zwischen Gott und König in 2. und 1. Jahrtausend v. Chr.* (State Archives of Assyria Studies 10; Helsinki: The Neo-Assyrian Text Corpus Project, 1999).
- Rochberg-Halton, Francesca, *Aspects of Babylonian Celestial Divination: The Lunar Eclipse Tablets of Enūma Anu Enlil* (Archiv für Orientforschung 22; Horn: Verlag Ferdinand Berger & Söhne Gesellschaft M.B.H., 1988).
- _____, "The Cultural Locus of Astronomy in Late Babylonia," H. D. Galter(Ed.), *Die Rolle der Astronomie in den Kulturen Mesopotamiens: Beiträge zum 3. Grazer Morgenländischen Symposium* (23-27. September 1991) (Grazer Morgenländische Studien 3; Graz: GrazKult, 1993), 35-43.
- Sasson, Jack M., "Water Beneath Straw: Adventures of a Prophetic Phrase in the Mari Archives," Z. Zevit et al.(Ed.), *Solving Riddles and Untying Knots: Biblical, Epigraphic, and Semitic Studies in Honor of Jonas C. Greenfield* (Wilmington Lake, Ind.: Eisenbrauns, 1995), 285-98.
- Turner, Victor W., "Religious Specialists," David L. Sills(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Vol. 13; New York: Macmillan and The Free Press, 1972), 437-44.
- Weinfeld, Manfred, "The Counsel of the 'Elders' to Rehoboam and Its Implications," *Maarav, A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Northwest Semitic Languages and Literatures* 3

(1982), 27-53.

검색어

간 짐술

천문짐술

종교적 지식

권력

빅데이터

Religious Knowledge in light of the Big Data and Its Influence on the Political Power in Ancient Mesopotamia and Israel

Dong-Young Yoon Ph.D.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Seoul Jangsin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aims to find out the types of the religious knowledge portrayed in the ancient Near Eastern texts and to analyze how to use them in the process of political decisions and in maintaining their power. The rites and rituals in the ancient Near East functioned characteristically in their own boundaries. They were managed by the specialists with religious knowledge. Sociology names these specialists as religious specialists or religious intellectuals. In the ancient Near

www.kci.go.kr

East, extispicy, astrology, and magic were categorized as *bārūtū*, skills of diviners, but they can be branded as religious knowledge from the sociological perspective. This religious knowledge can be regarded as the results of observations on the earthly and celestial phenomena, which are the basis of today's mathematics and science. Religious specialists used this knowledge to interpret the divine will, while kings referred to them to make crucial political decisions. Kings executed and maintained their power efficiently with the religious knowledge. Just as today's big data business considers the volume, variety, and velocity of data as important elements, so the ancient Near Eastern religious specialists rapidly circulated various vast data. The data were utilized to make political decisions and stored in royal archives to be retrieved and referred to in cases of necessity.

Keywords

extispicy

astrology

religious knowledge

power

big data

■ 투고일: 2017년 4월 1일

■ 심사일: 2017년 4월 22일

■ 게재 확정일: 2017년 5월 20일

www.kci.go.kr